

인 사 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인천 송도에서 “조화 속에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제8차 ACRP 총회를 한국 종교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아시아의 20여국에서 참여하신 450명의 종교지도자들에게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신 딘 삼수딘 의장님, 김성곤 사무총장님과 아시아 각국의 존경하는 종교지도자님, 그리고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공동 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년간 아시아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과 갈등, 분쟁이 있었으며 불행히도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직간접으로 종교와 연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구한 아시아의 종교 전통을 계승한 종교지도자들의 지혜와 헌신적 노력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제8차 ACRP 총회는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종교적 영성에 근거하여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소중하고 진전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아시아에서 종교 평화를 일구는데 훌륭한 기초가 될 것이며, 미래의 평화 환경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종교 사회이면서도 오랜 기간 갈등 없이 평화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종교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와 상호협력을 넓혀가고 있는 아시아 종교인평화회의(ACRP)와 같은 종교간 협력 조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쟁과 갈등은 발생이 되었을 때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며 생산적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회는 단순히 아시아의 종교지도자들이 만남을 갖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시아의 분쟁을 진정으로 해결하고 세계평화를 이루는데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8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진정한 평화를 이끌어줄 아시아 종교지도자들의 뜻을 한데로 모으고,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루는데 기초를 다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총회에 참석하신 아시아의 여러 종교지도자님과 총회를 이끌어주신 ACRP 지도부, 그리고 한국 종교인평화회의 공동 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자 승